■민족문화연구 제100호(2023.08.3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129-160.
http://doi.org/10.17948/kcs.2023..100.129

【 특집: 호모 아토포스의 탐색 】

조선시대 노-주의 연결망과 공동체성, '아카이브 신체'*
—『쇄미록』의 노비 기록에 대한 문학해석학적 연구—

최기숙(崔基淑)**

목 차

1. 노-주 연결성의 복합성과 확장성
2. 노비의 사회적 관계망과 노-주의 연결성·상호성
3. 물리적 환경의 공유와 생명적 노-주 공동체
4. 정서적 환경과 감성의 노-주 공동체
5. '아카이브 신체'로서의 노비 정체성과 '조립식 신체'의 노-주 연결성

국문초록

이 논문은 오희문의 일기『쇄미록』에 서술된 노비 관련 기록을 중심으로, 노비와 노주-양반의 관계가 단지 신분적 위계를 유지하는 명령-수행의 수직적 관계, 지배-복종의 종속적 관계에 한정되지 않았으며, 생활적, 환경적, 정서적 연결성을 유지하면서, 생명과 운명의 공동체를 형성했음을 해명했다.『쇄미록』에는 오희문과 가족이 피난길에 종의 집에 투숙하면서 노비 일가와 상호 돌봄과 상호 의존성을 형성했던 정황이 서술된다. 피난처에서 노-주는 같은 음식을 먹는 섭생과 생명의 공동체였으며, 주거, 날씨, 질병 등 환경을 공유했다. 노-주가 함께 노동에 참여했고, 노주의 명으로 노비가 대리적인 상행위를 하는 등 노-주는 생활적 차원에서도 신뢰의 연결성을 유지했다. 노-주는 일정 부분 감정적으로 공감하고 추억과 꿈을 나누는 정서와 영적 공동체였으며, 제사와 의례를 함께 지내거나 대리 수행하는 연결성을 형성했다. 그 밖에 노-주는 음악, 잔치, 유람을 함께 즐기는 풍류와 감성의 공동체적 성격을 공유했다. 노비는 신분적 특성으로 인해 문자 습득과 제도 교육으로부터 배제되었지만, 양반과의 접속, 교류, 교섭, 연결성을 통해 신체적·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C2A02091388).
** 연세대 한국학협동과정 교수.

경험적으로 지식과 정보, 교양과 감성을 축적하면서 스스로를 일종의 '아카이브 신체'로 단련했다. 양반과 노비는 일상의 필요나 사안에 따라 조립식 신체처럼 접속과 분리를 반복하며 탄력적인 연결성을 유지했다. 이 연구에서는 신분적, 젠더적 동질 집단 중심으로 조선시대를 사유할 때 인지할 수 없었던 노-주의 교섭과 연결성에 대해 주목해, 노-주 관계의 복합성, 다층성, 연결성, 공동체성을 문학해석학적으로 해명했다.

주제어: 오희문, 쇄미록, 노비, 양반, 노-주, 공동체, 연결체, 아카이브 신체, 일기, 몸종, 피난.

1. 노-주 연결성의 복합성과 확장성

이 글은 오희문(1539~1613)의 일기 『쇄미록』(1591.11.27.~1601.2.27)[1]에 서술된 노비 관련 기록을 중심으로, 일상적 삶에서 노비와 노주 양반의 관계가 단지 신분적 위계를 유지하는 명령-수행의 수직적 관계, 지배-복종의 종속적 관계에 한정되지 않았으며, 환경과 생활, 정서 차원의 공동체를 형성했고, 생명과 운명의 공동체라는 정체성과 연결성을 형성했음을 해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노비는 노주의 사유물로서 여겨지기에, 노-주 관계는 사회경제적 효용성에 주목해 노비를 사환, 또는 노주에 대해 신공의 의무를 지닌 존재로 간주하거나, 예외적으로 시혜의 대상으로 사유하는 경향이 있다.[2] 이 글에서는 여기서 나아가 노-주의 연결성과 공동체성이 양반과 노비의 일상을 구성하고 지탱하는 탄력적 요소로 작용했음에 주목한다.

---

1) 이 글에서 참조한 텍스트는 오희문, 『쇄미록』 1~8, 국립진주박물관 편,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옮김, 사회평론아카데미, 2019다. 1~6권은 번역본이고, 7~8권은 원문이다. 이 글에서 본문을 인용할 때는 번역본과 원문의 서지사항을 모두 밝히되 ';'로 구분하여 적었다. 연구에는 번역문과 원문을 모두 참고했으나, 논문에 인용할 때는 논문 문체의 일관성을 위해 필자가 부분적으로 윤문하거나 새로 번역했다. 일기의 날짜는 번역본을 참조해 서기로 적었다.

2) 정성미, 「『쇄미록』 연구」, 원광대 박사학위논문, 2003, 101면. 조선시대 신분제와 노비에 대해서는 지승종, 『朝鮮前期 奴婢身分硏究』, 일조각, 1995; 김용만, 『朝鮮時代 私奴婢硏究』, 집문당, 1997; 전형택, 『조선 양반사회와 노비』, 문현, 2010, 1장; 조우영, 『경국대전의 신분제도』, 한국학술정보, 2008, 16-63면 등에 상세히 정리되어 있다. 『경국대전』의 「戶典」, '徭賦'에는 '外居奴婢는 選上과 雜故를 除外하고 나이가 十六歲 以上 六十歲 二下는 모두 身貢을 거두어 司贍寺에 납부한다(奴는 綿布 1匹, 楮貨 20張, 婢는 綿布 1匹, 楮貨 10張을 납부한다. 혹 綿紬나 正布로서 代納하고자 하는 자는 들어준다. 尙衣院과 養賢庫에 소속된 奴婢의 綿布는 그 官司들에게 받아들인다'고 명시되어 있다. (『경국대전』, 「戶典」[『譯註 經國大典』 飜譯篇, 韓沈昉 외 옮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5, 166면])

『쇄미록』은 오희문이 임진년 전쟁에 전라도 장수, 충청도 홍주, 임천, 아산, 강원도 평강 등 거처를 옮기며 쓴 피난 일기로, 의식주와 관련되는 양반의 일상생활, 가족관계, 사회생활, 취미와 관심사, 정치와 국가에 대한 시각, (가족, 지인, 사회와의) 연결성 등을 다양하게 살필 수 있는 사료이자 문학 텍스트로, 1990년에 보물 제 1096호로 지정된 문화사적 유물이다.[3] 마지막 일기는 오랜 피난 여정을 마치고 서울로 도착해 쓴 1601년 2월 27일의 기록으로 끝이 나는데, 그 3일 전인 24일까지 종에 대해 기록했을 정도로 노비에 대한 서술의 비중이 크다. 『쇄미록』은 피난 중에 쓴 일기이기에, 기록된 일상에는 양반의 주거 이동성, 환경의 불안정성, 인간관계의 해체와 재구성이 발생한 측면이 있지만, 이런 특성 속에서도 노-주 관계가 평상적 관계의 연속성을 이어갔고 상호 이해의 잠재성이 표출되거나 확장된 측면이 발견된다.[4] 이 글에서는 『쇄미록』에 서술된 노비 관련 기록을 조선시대 노-주 관계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로 접근하는 동시에, 조선시대 노-주 관계의 보편적 양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확장적 사유의 바탕으로 활용한다. 이를 통해 노주가 소유 재산으로서 노비를 노동에 동원한 것뿐만 아니라, 노비의 사회적 연결망에 의존해 도움을 받았고,[5] 노비와 공간, 물질, 환경을 공유한 생명 공동체의 성격을 지녔으며, 정서, 감정, 영성, 의례, 놀이 등 정서와 환경의 감성 공동체를 형성했음을 논증한다. 이러한 연구 관점과 결과는 정치, 사상, 문자 문학 중심으로 논의되거나 신분적 위계에 따라 동질적 신분 집단을 중심으로 수행된 조선시대 연구의 지평을 확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는 노비를 노주 양반의 신체적 보조물이나 역량 강화의 대리물로 간주하는 데서

3) 정성미, 앞의 글, 13-22면을 참조. 『쇄미록』에 서술된 노비에 대한 연구는 정성미(2003)이 논문이 선구적이다. 논자는 16세기 양반사회에 대한 경제적, 사상적 차원을 고려하되 생활사 차원에서 접근했고, 임진왜란을 겪으며 이완되는 상하관계의 경제적 측면에 주목했다. 이 논문은 오희문이 벼슬살이를 하지 않아 일반 농민의 삶에 근접해 있고, 농민의 입장에서 일상과 사회를 바라본다고 언급했다.

4) 강명관은 성균관의 공노비인 반인(泮人)이 노주에게 수탈을 당하면서도 역으로 사족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자신의 요구를 표현하고 관철시킨 미묘한 주체라고 해석했다(강명관, 『노비와 쇠고기』, 푸른역사, 2023, 136면). 이러한 반인의 이중적 성향은 노비 일반의 성향으로 간주할 여지가 충분하다.

5) 양반이 노비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것은 양반이 노비를 통해 생명 활동과 사회활동을 할 수 있었고, 노비에게 명령을 할 뿐만 아니라 요청하고 부탁하는 등 복합적 관계를 맺었음을 뜻한다.

나아가, 노비와 노주의 신체적, 사회적, 감성적 연결성과 공동체성을 재사유하는 계기를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6]

2. 노비의 사회적 관계망과 노-주의 연결성 · 상호성

조선시대 노비에게도 사회적 연결망이 있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지거나 강조되지 않았는데,[7] 『쇄미록』을 통해 단편적으로나마 그 정황이 발견된다. 예컨대 오희문은 영암, 영동, 장흥, 홍주, 임천, 평강, 태인, 등의 피난과 이동 여정,[8] 임시 거처에서의 생계와 생활, 정서, 지향, 관계, 전쟁과 정치에 대한 전언과 소문 등 다양한 내역을 기록하는데, 그 과정에서 가족, 친척, 지인, 관리, 아전과 관속, 이웃, 백성, 상민, 중, 노비 등과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연결성을 형성한 정황이 파악된다. 이때 오희문은 자기 소유의 노비[9] 집에 투숙했을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노비들이 구축하고 있는 사회적 연결망에 의지하거나 도움받는 모습을 보였다.

① 남종 광진의 집에서 잤는데 저녁밥은 묘지기 남종 억룡이 차려서 올렸다.[10] (1596.8.14.)
② 나는 걸어서 식전에 홍주의 사곡에 있는 첨사 이언실의 남종 돌시의 집에 도착했다. 내 처자식이 10여 일 전부터 이곳에 와 있다가 내가 온다는 말을

6) 물론 노비와 양반이 반드시 신뢰 관계로 맺어진 것은 아니었으며, 노주를 속이거나 배반한 기록도 종종 보인다. 그 일부가 최기숙, 「매 맞는 노비와 윤리/교양의 역설: 『묵재일기』의 문학해석학적 연구」(『동방학지』 203, 연세대 국학연구원, 2023), 4장에서 논의되었다.

7) 그간 노비의 사회적 연결망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양반들이 노비 문제로 서로 청탁한 사례는 있지만(예컨대, 이문건의 『묵재일기』에는 노비가 법적 문제에 당면했을 때 그 노주가 다른 양반에게 청탁해 문제 해결을 요청한 기록이 있다[『묵재일기』 1558년 1월 17일 병인]. 이문건은 이를 거절했다.), 양반이 노비의 연결망에 의존한 점은 강조되지 않은 면이 있다. 이혜정은 이문건 가의 노비가 完護에 대한 청탁을 위해 노주가의 친인척이나 지인을 방문했음을 언급했는데, 이는 노-주의 사회적 연결망보다는 노비에 대한 노주의 관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본 논문의 문제의식이나 분석의 방향과는 상이하다(이혜정, 「16세기 奴婢의 삶과 의식 세계: 『묵재일기』를 중심으로」, 경희대 박사학위논문, 2012, 144-145면).

8) 오희문의 피난 여정에 대한 정리는 정성미, 앞의 글, 64면에 상세하다.

9) 정성미(앞의 글, 77면)에 따르면 오희문 소유의 노비는 대략 30여 명이다. 이에 대해서는 『쇄미록』 5권 506-508면/ 8권 466-467면을 참조.

10) 『쇄미록』 4권 597면; '因宿奴光進家, 夕飯則墓直奴億龍備進.' (『쇄미록』 8권 97면)

듣고 나와서 맞았다.[11] (1592.10.13.)
③ 밤이 깊은 뒤에 남매(셋째 여동생)의 남종인 정손의 집에서 잤다.[12] (1599.11.16)

오희문과 그의 가족은 피난 길에 무주에서 남종 인수,[13] 광진(①),[14] 첨사 이언실의 남종 돌시(②), 관아의 여종 심이,[15] 셋째 여동생인 남매의 남종 정손(③), 관아 고지기의 종 낙수(1594.1.18), 임진사의 여종의 남편인 임명수(1594.1.4.), 관아의 남종 걸이(1599.11.13.), 용곡역의 시노 기매(1593.1.13.)의 집 등에 들르거나 투숙해 도움을 받았다.[16] 대체로 자기 소유의 외거노비로 짐작되지만, 시집간 여동생의 종(③), 지인의 노비(생원 정문겸의 남종. 1594.1.2.), 자기 소유 노비의 이웃 노비(②), 관아에 소속된 노비나 다른 양반의 노비, 시노(1593.1.13.)의 집에도 머물렀다.[17] 특히 광진이라는 남종의 집에는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투숙한 정황이 포착된다. 광진은 집을 소유했기에 전라도 무인인 나대용에게 바깥방을 빌려주고 있었다.[18] 노비가 자기보다 높은 신분의 사람에게 방을 세주고, 양반을 돌보고 보살피는 일을 했다. 오래전 자신의 심부름을 해주었던 임진사의 여종과도 만났는데, 변함없이 상전으로 대해 주었다(1594.1.4.). 양반의 사회적 관계에 노비도 연결되었고, 과거의 만남과 경험이 관계 지속의 매개가 되었다.

---

11) 『쇄미록』 1권 279면; '余則步行, 朝前, 到洪州地蛇谷李僉使彦寶奴乭屎家. 余之妻子, 曾已到此, 十餘日矣, 兒輩聞吾來, 出門來迎' (『쇄미록』 7권 122면)
12) 『쇄미록』 6권 197면; '夜深就南妹奴鄭孫家宿.' (『쇄미록』 8권 584면)
13) 1592.2.(『쇄미록』 1권 52면/ 7권 8면) 초고에는 인용한 『쇄미록』의 원문을 모두 제시했으나, 이하 간략히 날짜만 적거나 '번역문/ 원문'의 출처를 약식으로 명시한다. 번역의 일부는 필자가 새로 했다.
14) 오희문의 주 거처가 남종 광진의 집이어서 여기에 묵은 기록은 매우 많다.: 1596.8.16.(『쇄미록』 4권 399면/ 8권 98면); 1596.8.17.(『쇄미록』 4권 401면/ 8권 99면); 1597.2.7.(『쇄미록』 5권 53면/ 8권 193면); 1599. 11.15.(『쇄미록』 6권 196면/ 8권 584면) 등.
15) 1593.7.19.(『쇄미록』 2권 140-141면/ 7권 233면)
16) '도움을 받았다'는 것은 필자의 해석이다. 신세 지다, 도움받다, 마땅한 권한을 누리다 등의 서술어에는 관계에 대한 질적 해석이 반영된다. 대체로 '보살핌'은 연령, 신분, 재산, 지위가 높은 데서 아래로 행해진다고 여겨지는 경향이 있으나, 실제로는 아래에서 위로도 이루어졌다. 조선시대에도 상호 돌봄이 존재했다. 며느리의 시부모와 남편에 대한 '봉양'은 현대적으로 보면 엄연한 '돌봄'이고 '보살핌'이다. 이에 대해서는 최기숙, 『이름 없는 여자들, 책갈피를 걸어나오다』, 머메이드, 2022, 3장을 참조.
17) 그 밖에 남종 집에서 자기도 했다(1592.11.13.[『쇄미록』 1권 295면]) 등.
18) 1600.8.20.(『쇄미록』 6권 329면/ 8권 671면)

양반과 종은 직접적인 종속 관계가 아닐지라도 양반의 사회적 연결망 속에 포함되어 다선적 관계를 유지했다. 노비도 사회적 연결망을 형성했는데 노주는 이를 자연스럽게 활용했다. 노비의 사회적 연결망에는 자신의 가족, 지인, 이웃, 그리고 자신이 만났던 양반도 포함되었다. 양반 A와 B가 가족이거나 친척, 지인인 경우, A와 B는 상대방 노비와도 교차적 연결망을 형성했다. 노비가 양가를 왕래하며 세대주 양반과 안면을 트고 물건도 운반하고 심부름도 하며 소식을 전하는 등, 사실상 양반가의 일상에 다양하게 연루되어 기억과 경험을 축적했기에 가능한 일이다.[19] 노주의 친척과 지인을 접촉한 경험이 있는 노비는 이후에 이들을 만나면 소식을 전하는 정보 전달의 역할을 했다. 사실상 노비와 양반이 정보 공동체의 성격을 지녔던 것이다. 노비가 노주를 위해 노동한 경험은 그 자체로 양반과 노비, 세대와 세대를 잇는 통신망이 되었다. 예컨대, 오희문은 의주에서 호남으로 가는 길에 여종 봉화의 집에 투숙했는데, 봉화는 별좌 신천응의 종의 아내다.[20] 노주가 노비 가족이나 사회적 관계망을 자연스럽게 활용했고, 노비도 이에 응했다.

④ 또 출발했는데 오 리도 못 가서 비가 내렸다. 하는 수 없이 연천군 관아의 사내종 걸이의 집으로 서둘러 들어갔다. 일행에게 비를 막을 도구가 없어서 도중에 큰비를 만나면 흠뻑 젖을까 두려워서이다. 집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어 비가 그치고 해가 났다. 가지 않은 것이 심히 안타까웠지만 날이 이미 저물어 그대로 묵었다. 집주인이 점심을 지어 내주고 또 세 가지 좋은 김치를 주었다. 매우 고맙다. 방어 반 조로 보상했다. 이로 인해 저녁 지을 쌀을 줄였다.[21] (1597.2.11.)

위 사례는 오희문은 이동 중에 비를 만나 관아의 남종 걸이의 집에 투숙해 대접받은 정황이다. 오희문은 관노의 도움과 배려에 대해 양반이 누릴 당연한

19) 오희문은 이동 중에 동생의 남종 춘희와 자신의 남종 한세를 만나 동행하면서 심부름도 시키고 어머니의 소식도 들었다(1599.11.15.『쇄미록』6권 196면/ 8권 584면).
20) 1592.12.14(『쇄미록』1권 322면/ 7권 148-149면).
21)『쇄미록』5권 57면; '又發來, 未及五里, 酒雨, 不得已馳入漣川郡內官奴傑伊家, 上下無雨具, 恐其中路逢大雨添濕也. 入家未久, 雨勢還晴日出, 深恨未歸也. 然日已傾矣. 家主炊供點心, 又呈三色好沈采. 深謝深謝! 只以方於半條償之, 因減夕食之米.'(『쇄미록』8권 194면)

권리로 여기지 않았으며, 고맙게 여겼고 물질로 보상했다. 오희문은 남종을 '집주인(家主)'으로 불렀다.

오희문은 광노의 집 사람들(家人)이 떠날 때 어머니에게 편지와 약과, 여러 지역에 사는 자녀에게 광노의 인편을 활용해 편지를 전하게 한 바도 있다.[22] 편지와 물품의 전달처가 많아 광노 혼자 감당하기 어려웠으므로, 노비의 인편을 활용하게 했고, 보답차 광노의 처에게 녹두 5되를 보냈다. 노주가 노비의 사회적 관계망을 활용해 업무 지시를 내렸고, 노비가 자연스럽게 수용한 것을 보면, 이미 익숙한 관례였음을 알 수 있다.

숙부의 남종 근이는 오희문의 여종 옥춘을 만나 오희문 아들인 오윤해의 근황을 전해 준 바도 있다.[23] 친척과 일가의 노비끼리 서로 소식을 주고받았으며, 그 일부는 노주에게 전달되었다. 오희문의 처남인 이빈의 여종 환이와 구월은 한양에 가다가 오희문이 투숙하는 충청도 임천의 거주지에서 들러서 자고 가기도 했다. 오희문은 이들을 위해 밥을 대접했다.[24] 노주의 사회적 연결망을 노비들도 활용한 사례다.

그렇다면 피난 길에 피난 길에 종의 집에 투숙하는 양반은 종에게 노주 또는 양반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것인가, 사실상 종에게 의존하여 도움을 받은 것인가? 기록을 보면 자기 소유의 종과 가족, 지인, 친척, 관인의 종 집에 투숙한 오희문(가족)이나 종들이 이를 수용하는 과정이 매우 자연스럽고 원활하다. 정황상으로는 신분적 위계를 활용한 권리 행사이지만, 실제의 과정은 피난으로 고통받는 타자, 이웃, 상전에 대한 배려이자 돌봄으로 수행된다. 권리와 의존, 복종과 배려・돌봄이 중첩되는 것이다. 이러한 정황은 실생활에서 노-주 관계가 단지 신분적 상하관계에 종속된 지배-복종의 위계관계로 한정된 것이 아니라 상호의존과 상호돌봄 등의 호혜적 관계를 맺었음을 방증한다. 신분제라는 제도적 시선으로 보면 노-주 관계는 명령-복종의 관계로 명시되지만, 삶의 내용적 차원에서 보면 상호의존, 상호돌봄, 호혜의 측면을

22) 1600.5.23.・24.(『쇄미록』 6권 292면/ 8권 646면)
23) 1594.1.28.(『쇄미록』 3권 35면/ 7권 345면)
24) 1596.3.16.(『쇄미록』 4권 294면/ 8권 35면)

보인다. 양반은 종들의 사회적 관계망을 활용하면서 이를 당연한 권리로만 여기지 않았고 물질적 보상을 해서 답례를 했다.[25] 노비에게 고맙다는 직접적인 말은 적지 않았지만, 행동 자체가 감정을 담은 정동적 기호이기에, 물질적 보상 행위는 물리적 증여 이상으로,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정황이 주-종관계에도 발생했으며, 상호 교차적이고 복합적인 관계망을 형성했다고 볼 수 있다.

3. 물리적 환경의 공유와 생명적 노-주 공동체

양반과 노비는 신분적 예속을 통한 주종관계다. 오희문은 남종 인수의 집에서 재산분배에 대해 말하며, 인수와 그의 오촌 질녀가 자기 집 몫이 되었다고 말했다. 예전에 재산을 분배할 때는 그곳 노비들이 모두 누락되어 오랫동안 외사촌들에게 빼앗겼는데 이제 그 몫을 되찾았다는 것이다. 오희문 입장에서는 재산으로서의 노비를 찾은 것인데, 종 인수도 이를 반겼다(甚喜). 마음에 드는 주인에게 소속되어 기뻐한 것으로도 볼 수 있고, 이제 새 주인이 된 오희문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서 반겼을 수도 있다. 감정의 진위와 무관하게 노비에게는 자신의 사회적 소속을 확정하는 중요한 일이었다.[26] 이처럼, 노비가 노주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매매와 관리, 통제의 대상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일기에 기록된 일상의 면모를 보면 노비와 노주는 단순한 종속성을 뛰어넘어 다양한 공동체성, 연결성을 맺었음이 확인된다. 이 장에서는 특히 물리적 환경의 차원과 섭생을 통한 생명 공동체의 측면에서 논의한다.[27]

---

25) 이혜정은 『묵재일기』를 통해 노주들이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노비를 공동 관리했다는 실용적 차원을 분석한 바 있다(이혜정, 앞의 글, 144-147면). 『쇄미록』은 피난기에 작성된 것이어서 평상시의 노-주 관계와는 다른 특수성이 드러났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일상을 기록한 『묵재일기』에서도 노-주의 계약적 관계 이면에 인정과 교감이 상호적으로 이루어졌고, 이익과 정이 다층적으로 얽힌 복합적 관계를 형성한 측면이 보인다.

26) 해당 사례는 1591.12.26.로 추정됨(『쇄미록』 1권 54면/ 7권 9면을 참조).

27) 노비의 이동과 운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기에,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노-주의 관계를 엄격한 신분적 위계로 단정하지 않고 상부상조하는 관계로 보는 것은 임진왜란 이후 경제적 변화로 신분 예속적 관계가 변화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출된 바 있다(이수건 편저, 『경북지방고문서집성』, 영남대출판국, 1981; 정성미, 앞의 글, 110-111면을 참조). 이는 18세기 사료를

1) 섭생과 나눔 공동체: 음식과 젖

『쇄미록』을 통해 노-주가 같은 음식을 먹는 섭생공동체적 성격이 발견된다. 노-주가 같은 음식을 먹거나 나누어 먹은 정황은 노-주의 신분적 위계가 생활의 분리를 통해 엄격하게 통제되었으리라는 발상과는 다른, 연결성과 공동체성을 시사한다. 『쇄미록』에서 노-주의 겸상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데, '함께 먹었다(共喫; 共之)', '나누어 먹었다(分喫)', '나누었다(分給; 分與; 分)'는 표현과 더불어 양반이 먼저 먹고 노비에게 물려준 정황도 있다. 노주가 노비와 음식을 나눈 것은 피난 중이라 주종의 식사를 구분할 경제적, 환경적 여건이 부족해서이기도 하지만, 명절, 생일, 제사, 농사나 낚시 중에도 음식을 공유한 사례가 있다. 이는 전쟁이 아닌 일상에서도 이런 일이 상례적이었음을 시사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피난 중에 노주가 노비와 음식을 공유했다. 나눠 먹은 음식은 밥, 죽, 자릿조반, 국수(湯糰)[28] 등이다.

> ⑤ 아흐레 동안 술에 취하지 않은 날이 없고, 육지와 바다에서 나는 진귀한 음식을 수시로 맛보았다. 비단 나만 포식한 것이 아니라 종들까지 배불리 먹고 물려서 남길 정도였다. (1592.3.18.-4.9. 사이)[29]

피난 중에 양반과 노비가 항상 같은 음식을 먹은 것은 아니지만, 음식을 공유한 사례가 있다. 오희문은 피난길에 둘째 여동생의 집에서 9일간 머물렀는데, 소를 잡는 등 진귀한 음식을 대접했고, 종들까지 포식했다(⑤). 식량이 생기면 상하가 함께 나누어 먹었다.[30] 양반 손님이 방문하면 음식을 대접했지만,

---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쇄미록』에도 노주의 노비에 대한 시혜나 인정이 보이기에, 해당 논제에 대한 확장적 접근이 가능하다.

28) 1595.5.14.(『쇄미록』 4권 120면/ 7권 584면)

29) 『쇄미록』 1권 61-62면; '九日之中, 無日不醉, 水陸珍饈, 無時不備. 非但吾腹極飽, 而餘至於奴僕, 亦厭其餘.' (『쇄미록』 7권 11면)

30) 1593.10.6.(『쇄미록』 2권 194면/ 7권 265면) 등. 여기서 '上下'라는 표현은 연령이 아니라 신분상 위계를 말한다. 오희문은 피난 와서 어머니와 같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스스로 '위(上)'라고 부를 사람이 없다. '상하'가 함께 음식을 먹었다는 표현은 자주 보인다.

그를 수행한 노비는 챙겨온 음식을 먹었다.[31] 양식이 떨어졌을 때 이문건 자신은 지인의 초청을 받아 아침을 먹었지만, 종들에게는 주지 못해 안타까운 심정을 적었다.[32] 식량 조달이 막혔을 때, 상하 가속이 콩죽을 쑤어 먹기도 했는데,[33] 오희문은 죽을 좋아하지 않아 따로 밥을 지어 먹었다고 했다.

둘째, 노-주가 함께 잡은 물고기와 식재료를 공유했으며,[34] 외부에서 바친 음식이나 선물 받은 음식도 노비와 나누었다.

> ⑥ 평강(오윤겸)이 백미 2말, 소금 1섬, 미역 1동, 은어 50뭇, 두(豆) 10말, 말린 열목어 4마리, 절인 전복 60개, 송어 반 짝, 식초 1되를 가지고 왔다. (…) 가자미 1뭇과 은어 4뭇을 각각 아우와 생원(오윤해)에게 보내고 또 노비들에게도 나누어 주었다.[35] (1598. 4.17.)

오희문은 장남 오윤겸이 보낸 음식을 노비와 나누어 먹었으며,[36] 그가 보낸 식재료의 일부를 동생과 차남에게 보내고 노비와 나누었다(⑥). 이웃이 보낸 술, 떡, 과일을 여종에게 나눠주었으며, 딸이 보낸 음식도 이웃 및 노비와 나누어 먹었다.[37] 청탁을 위해 바친 음식을 차마 물리치지 못해 받자마자 하인들에게 나누어주기도 했다.[38] 노비와 음식을 나누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상이었다.[39]

셋째, 설날,[40] 대보름,[41] 답청절,[42] 단오(⑦), 백중[43] 등 명절이나 절기에,

---

31) 1698.7.22.(『쇄미록』 5권 428면/ 8권 415면)
32) 1598.1.3.(『쇄미록』 5권 25면/ 8권 178면)
33) 1593.5.30.(『쇄미록』 2권 98면/ 7권 211면)
34) 예컨대, 뱅어를 노비와 나눈 사례(1596.3.7.:『쇄미록』 4권 288면/ 8권 32면) 등.
35) 『쇄미록』 5권 368면; '平康來時, 白米二斗, 鹽一石, 甘藿一同, 銀魚五十束, 加佐味十束, 豆十斗, 乾餘項魚四尾, 鹽鰒六十介, 松魚一尾半隻, 醋一升持來, 生雉二首亦來. (…) 加佐味一束, 銀魚四束, 各贈舍弟家及生員處, 又分與奴婢等.' (『쇄미록』 8권 380면)
36) 1598.7.2.(『쇄미록』 5권 415면/ 8권 408면)
37) 1596.1.5.(『쇄미록』 4권 250면/ 8권 8면)
38) 1597.2.22.(『쇄미록』 5권 65면/ 8권 199면)
39) 이 또한 피난이라는 특수 상황에 한정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묵재일기』에도 노비와 양반이 한 마을에서 굿을 보거나 참여하고 같은 점술가와 소통한 흔적이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최기숙, 「『묵재일기』, 16세기 양반의 감정 기록에 대한 문학/문화적 성찰」, 『국어국문학』 193, 국어국문학회, 2020, 352-358면.
40) 1597.1.1.(『쇄미록』 5권 23면/ 8권 177면)
41) 1599.1.15.(『쇄미록』 6권 29면/ 8권 478면)

또는 노주 가족의 생일(⑧)이나 제사[44]에, 노주가 종들에게 음식을 나눠주었다.

⑦ 단옷날이다. (…) 이웃에 사는 전업, 김언보, 김억수 등이 술과 떡, 과일을 가져와서 여종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 곧바로 윤겸의 편지를 뜯어 보았다. 명절이라 술과 떡과 찬거리를 마련해 보내왔기에 잘 받았다. 다만 입안의 종기가 곪아 닿는 데마다 아파서 보기만 할 뿐 먹을 수가 없으니, 그림의 떡이나 다름이 없다. 한탄한들 어찌하겠는가. 곧바로 여종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또 가지고 온 현의 아전에게 주면서 탁주 두 잔을 마시게 했다.[45] (1597.5.5.)

⑧ 오늘은 집사람의 생일이다. 정서방댁이 떡을 만들고 이시열은 행과를 갖추어 우리 내외와 윤함(오희문의 셋째 아들)을 아랫집으로 청해서 대접했다. 나머지는 노비들에게 내려 주었으니 깊이 감사하다.[46] (1597.1.5.)

노-주는 명절과 기념일, 의례에 음식을 나누는 음식과 음복의 공동체적 성격을 지녔다. 음식은 섭생의 요건이자 미각을 통한 쾌락을 향유하는 감각의 매개물이다. 음식에는 역사적, 문화적 의미가 집결되므로, 노-주가 음식을 매개로 풍속과 문화, 정서를 공유했다고 볼 수 있다.[47] 음식을 매개로 노-주간 물질적 공유・공생 관계가 생성되었으며, 감각적이고 신체적 연결성을 형성했다.

넷째, 여종은 양반과 아기에게 수유함으로써 양반과 종은 젖의 공동체를 형성했다.

⑨ 요새 딸의 젖이 나오지 않아 매양 젖이 분 관아의 여종에게 젖을 짜게 하여 이를 그릇에 담아 데워다가 새로 태어난 아기에게 숟가락으로 먹이게 했는데 이내 토한다고 한다. 그래서 현감에게 이 말을 했더니, 현감이 즉시 젖이 분 관비에게 관아의 안채로 들어가 직접 젖을 먹이도록 했다. 그런 뒤에 아기가 토하지 않았다.[48] (1596.1.29.)

---

42) 1597.3.3.(『쇄미록』 5권 71면/ 8권 203면)
43) 1597.7.15.(『쇄미록』 5권 166면/ 8권 258면)
44) 1598.1.5.(『쇄미록』 5권 304면/ 8권 341면)
45) 『쇄미록』 5권 118-119면; '端陽佳節也卽. (…) 且隣居全業・金彦甫・金億守等, 持酒餠, 盤果來供, 分與婢輩. (…) 卽見謙書, 爲節日備酒餠饌物付送, 一一依領. 但口瘡融爛, 觸處皆痛, 只見而已, 不能食, 無異畫餠, 可嘆奈何? 卽分與婢輩, 又饋來吏, 飮以濁酒兩盃.' (『쇄미록』 8권 229-230면)
46) 『쇄미록』 5권 26면.; '且今日家人初度也. 鄭書房宅造餠, 時說則備行果, 邀余夫妻及允諴于下家饋之. 餘及下奴婢等, 深謝深謝.' (『쇄미록』 8권 179면)
47) 노주와 노비가 서로의 생일을 챙기며 친밀함을 표현한 사례, 명절에 노주가 함께 음식과 놀이를 즐긴 점 등은 이혜정, 앞의 글, 132면을 참조.

오희문의 딸은 아기를 낳고 젖이 나오지 않아 관아 여종의 젖을 대신 먹였는데 아기가 토하자 현감에게 이 일을 상의했다. 현감이 수유가 가능한 관비를 직접 보내주어 딸이 젖을 먹을 수 있었다. 양반끼리의 연결망을 통해 도움을 받아 관아 여종의 젖을 양반 자녀가 공유한 사례다.

이상의 사례는 노비와 양반이 음식을 공유하여 일정 부분 같은 영양분을 섭취해 생명을 유지했음을 시사한다. 역으로 보면 상한 음식을 먹을 경우 함께 병에 걸리는 섭생 공동체였다. 노-주가 같은 음식을 먹을 경우 같은 영양소를 섭취할 뿐만 아니라 맛을 통해 공통 감각도 공유했고, 여기에 매개된 문화도 일정 부분 함께 향유했다.

2) 환경의 공동체: 주거・날씨・질병

조선시대 노-주는 신분적 위계로 정체와 인격, 삶이 분리되기 이전에 주거 공간, 날씨, 자연, 질병 등을 공유한 환경공동체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이런 측면은 그간의 연구사에서 잘 부각되지 않은 경향이 있었는데, 피난기라는 특수 상황에서 양반이 기록한 일상 기록을 통해 노-주의 연결성과 공동체성을 살필 수 있는 단서와 흔적을 살펴볼 수 있기에 주목을 요한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주의 거주공동체적 성격이다. 오희문의 아들 오윤해는 피난 가면서 남종 광이에게 남아서 집을 지키게 했다.[49] 원래 양반의 거처였는데 노비가 명을 받아 거처하면서 노주 집을 관리하고 돌본 것이다. 피난처에서 오희문과 노비들은 같은 집에서 지내거나, 이동 중에 비를 만나면 한 공간에 체류하는 거주공동체의 모습을 보였다.[50] 오희문의 숙소 자체가 노비의 집인 경우도 많다. 전쟁 시기가 아닐지라도 솔거노비는 노주의 집에서 함께 살았지만, 건축 구조상 노비와 양반은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었다(그러나 마당이나 문, 부엌 등 양자가 접촉하는 공간이 당연히 있다). 연구사적 관심도 공동체적

48) 『쇄미록』 4권 264면; '新兒近因其母乳不出, 每使其乳官婢, 挾出乳汁, 盛器溫之, 用匙飮之, 輒卽還土. 故因言太守此意, 卽卽使乳官婢, 入衙內, 親自乳之, 自此後不吐矣.' (『쇄미록』 8권 16-17면)

49) 1593.5.8.(『쇄미록』 2권 77면/ 7권 200면)

50) 1593.6.5.(『쇄미록』 2권 102~103면/ 7권 213면) 등.

성격보다 상호 위계적으로 격절된 차원에 집중된 경향이 있었기에, 거주공동체라는 당연한 인식이 배제되거나 누락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양반가의 노비는 음식 조리나 길쌈, 제사 등 각종 업무를 수행하며 양반의 생활공간에서 공존하고 공생했다. 평상시에 이들의 공유 공간은 대체로 양반의 소유지이거나 마을, 거리, 이동 공간 등 '비장소(non-place)'[51]의 특성을 지니기에, 연구사적으로도 노-주 공유, 또는 교섭의 공간성에 대한 관심 자체가 누락된 것이다.

둘째, 질병 및 감염 공동체의 성격이다. 노-주는 같은 공간에 거주했기에, 날씨나 자연재해, 호환 등 같은 환경의 영향을 받았고, 홍역(⑩), 학질(⑪),[52] 감기와 시령(時令: 유행성 상한병[傷寒病], 또는 전염병 질환),[53] 이질[54] 등의 전염병이 돌면 노-주가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감염되어 고통을 겪었다. 질병의 경우, 오희문가 외에 다른 노-주의 경우에도 전염과 질병에 함께 연루되는 성격을 보였다.

⑩ 그런데 올봄의 병은 한집안에서 서로 전염되어 드러누운 자가 대여섯 명이나 되고, 거기에 홍역까지 들어와서 단아와 충아와 몽임, 그리고 남종 명복, 안손, 여종 춘월, 신덕이 동시에 앓았으니, 그간의 아픈 괴로움과 걱정스러운 마음은 오히려 한 번 죽느니만 못했다.[55] (1593.1.13.)

⑪ 아내 및 두 딸, 생원(오윤해)과 여종 넷이 모두 학질에 걸려 누워 있어서 저녁밥을 지을 사람이 없다. 그들이 조금 낫기를 기다렸다가 밥을 짓는다면 분명 밤이 깊을 것이다. 안타깝다.[56] (1593.9.17.)

오희문의 집안에서 5~6인이 전염병에 걸렸고, 딸(단아), 손자(충아), 손녀

51) 비장소(non-place)란 마르크 오제가 전통적이고 인류학적인 장소에 대비되는 '흐름의 공간(spaces of flow)'을 명명하기 위해 제안한 개념으로, 관계성, 역사성, 정체성의 부재라는 특징을 지닌다(마르크 오제, 『비장소』, 이상길・이윤영 옮김, 아카넷, 1992/2017).

52) 1595.1.28.(『쇄미록』 4권 33면/ 7권 536면); 1593.6.26.(『쇄미록』 2권 118면/ 7권 222면);1595.9.12.(『쇄미록』 4권 192면/ 7권 627면) 등.

53) 1598.5.8.(『쇄미록』 5권 383면. 8권 388면)

54) 1593.6.26.(『쇄미록』 2권 118면/ 7권 222면); 1693.7.2.(『쇄미록』 2권 124면/ 7권 225면) 등.

55) 『쇄미록』 2권 36면; '而今春之病, 一家相染連臥者五六, 而紅疫又入, 端女・忠兒與蒙任及奴命卜・安孫・婢春月・申德, 一時行之, 其間辛痛之苦, 憂悶之深, 猶當一死而耳.' 『쇄미록』 7권 177-178면)

56) 『쇄미록』 2권 183면; '荊布及兩女, 生員與四婢, 皆痛瘧而臥, 夕飯無人炊供, 待其痛歇而後炊之, 則必夜深矣, 可嘆可嘆.' (『쇄미록』 7권 258면)

(몽임)와 노비들이 함께 홍역을 앓았다(⑩). 오희문의 가속은 여러 차례에 학질에 걸렸는데, 손녀와 여종이 동시에,[57] 또는 아내와 두 딸, 여종 네 명이 같이 학질에 걸리기도 했다(⑪). 여종 동을비가 이질에 걸린 지 6일 뒤에 오희문의 아내도 이질에 걸렸다.[58] 남종 덕노가 학질에 걸렸을 때 오희문은 편두통과 치통을 앓았고, 학질에 걸린 것이 아닌가 불안해했다(1595.9.12.). 이런 성향은 오희문의 동생, 이웃, 관아에도 해당되는 보편적 현상이다. 오희문의 동생인 오희철(吳希哲. 자는 언명[彦明])의 딸인 신아는 여종 옥춘과 함께 시령에 걸렸고(1598.5.8.), 오희문의 이웃인 김대성은 역병으로 사망했는데 그의 처자식과 종도 역병에 감염되었고 큰 며느리는 사망했다.[59] 관아에 감기가 유행하면 신분과 관계없이 모두 감염되었다.[60]

질병을 매개로 노-주가 환경공동체이자, 감염공동체이며, 연결된 신체로서 생명공동체적 성격을 띠었고, 생사를 넘나드는 운명공동체의 성격을 보였다. 전염을 염려해 병 걸린 여종을 격리시키기도 했다.[61] 대개 노비가 병에 걸리면 일하지 않고 휴식을 취했지만, 증세의 경중에 따라 심부름도 하고 밭일을 하기도 했다.[62]

셋째, 노-주는 씨와 호환(虎患) 등 자연의 위협에 동시에 노출된 환경공동체적 성격을 지녔다.

⑫ 오후에 비가 내렸으니, 아마 이 비로 인해 얼고 춥게 될 것이다. 위아래 식솔들의 옷이 얇으니 매우 걱정스럽다.[63] (1599.9.23.)

⑬ 마을 사람들이 술과 안주를 모아서 냇가에 모여 무당을 불러다가 북을 치면서

57) 1595.1.28.(『쇄미록』 4권 33면/ 7권 536면)
58) 각각 1593.6.26.(『쇄미록』 2권 118면/ 7권 222면); 1693.7.2.(『쇄미록』 2권 124면/ 7권 225면) 등.
59) 1594.7.2.(『쇄미록』 3권 155면/ 7권 418면)
60) 1597.3.17.(『쇄미록』 5권 83면/ 8권 209면)
61) 1696.3.7.(『쇄미록』 4권 69면/ 7권 555면)
62) 1595년 9월 12일의 일기를 보면 덕노는 학질에 걸렸는데 다음날 양식을 구하러 함열에 다녀왔다(『쇄미록』 4권 193면; 7권 627~628면), 9월 21일에는 밭일을 하다가 학질이 발병에 일을 중단했다(『쇄미록』 4권 196면/ 7권 630면), 노비가 병을 핑계로(托病) 일을 하지 않아 일할 사람을 구하느라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하소연도 적었다(1595.9.27: 『쇄미록』 4권 198면/ 7권 631면),
63) 『쇄미록』 6권 174면; '午後下雨, 必因此凍寒, 上下衣薄, 極可慮也.' (『쇄미록』 8권 569면)

> 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호환을 물리치기 위해서란다. 노래하고 춤추면서 놀고 종일 유희를 즐겼다. 우리 집의 여종들도 가서 참여했다. 술 1동이와 떡 1바구니를 갖다 바치기에, 온 집안 식구가 함께 먹었다. 64) (1600.8.6.)

오희문은 춥거나65) 서리가 내리고66) 비가 오면(⑫) 위아래 식솔들의 옷이 얇은 것을 걱정했고, 마을에 호환이 나면 소식을 기록해서 위험에 대비했다(⑬). 날씨나 호랑이는 신분과 무관하게 같은 지역민 모두를 위협하는 재난의 대상이다.67) 호환을 물리치기 위해 위아래가 모여 굿하는 장면은 재난에 대해 노-주가 신분적 위계를 넘어, 심리적, 정서적, 영적으로 공동체성을 형성했음을 시사한다.

3) 생활의 연결체: 노동・경제・신뢰

조선시대 양반가의 일상 노동은 노비가 수행했다고 알려졌지만, 양반도 노동했으며68) 노비와 함께 일했다. 오희문은 노비에게 물품의 운반과 전달, 상업의 대리 수행, 노비 신공 징수나 추쇄 등의 업무를 맡겼다. 노비는 양반의 경제 업무를 대리 수행했고, 이를 통해 모종의 신뢰 공동체를 형성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반과 노비는 함께 일하는 모습이 발견되는데, 노동의 현장에서 양반은 대체로 일하는 노비를 관리, 통제, 감시하는 역할을 했지만, 몸을 써서 함께 일하기도 했다.69)

⑭ 아침 식사 후에 남종 셋을 데리고 계당으로 가서 더러운 물건을 청소하고

---

64)『쇄미록』6권 321면; '里中人等合酒肴, 會川邊, 因邀巫擊鼓祀神, 爲闢虎患云. 歌舞作遊, 終日爲戱, 吾家婢子等亦往叅焉. 酒一盆, 餠一笥亦來獻, 一家共之.' (『쇄미록』8권 666면)
65) 1599.7.27.(『쇄미록』6권 142면/ 8권 550면)
66) 1597.9.16.(『쇄미록』5권 234면/ 8권 295면)
67)『쇄미록』는 호환에 대한 기록이 자주 보인다. 1600.8.1(『쇄미록 6권 319면/ 8권 665면) 등.
68) 양반가 여성이 노동한 내역과 일의 종류, 종과의 협업에 대해서는 최기숙,「女工・婦德・梱政과 '영혼 노동': 조선시대 양반 여성의 결혼생활과 노동/장 재성찰」,『인문과학』123, 연세대 인문과학연구원, 2021.을 참조.
69) 종과 함께 일하던 양반이 종에게 일정 부분 배웠을 가능성도 있는데, 기록되어 있지는 않다.

소나무를 베어다가 담이 무너진 곳에 울타리를 만들었다.[70] (1593.4.25.)

오희문은 남종과 청소, 울타리 만들기(⑭), 처마 만들기[71] 등을 같이 했으며 노동의 규모나 강도를 파악해서 효율적으로 일을 지시했다.[72] 집안사람들(一家人)과 함께 일했다는 표현은 신분 경계 없이 모두 함께 일한 정황을 시사한다.[73]

둘째, 양반의 생계 수단의 일부인 상업적 행위를 양반이 직접 하지 않고 종에게 대리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물건과 돈이 관여되기에, 종에 대한 신뢰 없이는 진행 자체가 불가능하다.

⑮ 덕노를 결성으로 보내 그곳 곡식을 쌀로 찧어 소금으로 바꿔서 오도록 일렀다.[74] (1596.4.16.)

⑯ 관아의 남종 갯지가 그저께 한양에서 현에 도착하여 오늘 비로소 이곳에 왔다. 그는 지난날의 덕노처럼 한양에 갈 때 목필과 닭 등을 가지고 가서 3새 포로 바꾸어 오는 일을 맡았다. 정목 3필을 검푸른 삼승포 2필로, 닭 23마리를 검푸른 3새 포 1필과 반청 3새포 2필로 바꾸어 왔고, 인아가 잡은 수달의 가죽으로는 또한 반청 3새포 1필 반으로 바꾸어 왔다. 보낸 물건의 값을 계산하여 따져 보면 많이 부족하고 바꾸어 온 3새 포도 그리 좋지 못하다. 탄식한들 어찌하겠는가.[75] (1599.1.20.)

오희문은 덕노(⑮), 세만, 갯지(⑯) 등 남종을 통해 물물교환이나 상행위를 대리 수행하게 했다. 특히 덕노라는 남종이 오희문가의 상행위를 담당한

70) 『쇄미록』 2권 66면; '朝食後, 率三奴, 往溪堂, 掃除穢物, 斫松作籬於破墻處.' (『쇄미록』 7권 193면)
71) 1593.6.26.(『쇄미록』 2권 118면/ 7권 221면)
72) 예컨대 다음과 같다: '박언방의 집 앞에 있는 밭을 빌려 언신에게 갈고 참깨를 심게 했다. 이 밭은 반나절갈이다. (1597.4.12.) (『쇄미록』 5권 101-102면; '借得朴彦邦, 令彦臣耕之, 種眞荏, 而半半日耕矣.' 『쇄미록』 8권 219면)
73) 1598.9.14.(『쇄미록』 5권 455면/ 8권 432면). 『쇄미록』에서 노동의 주체로는 '일가노비(一家奴婢)'(1598.9.16; 『쇄미록』 8권 432면 등), '일가비자(一家婢子)(1598.7.20.; 『쇄미록』 8권 414면 등), '일가인(一家人)' 등이 서술되는데, 엄밀히 구분된 것으로는 볼 수 없지만, 후자의 표현에는 양반도 포함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74) 『쇄미록』 4권 312면.; '送德奴於結城, 以其處穀舂米貿鹽而來事敎之.' (『쇄미록』 8권 47면)
75) 『쇄미록』 6권 31면.; '○ 衙奴según知自京昨昨到縣, 今始來此, 乃前日與德奴上京, 木疋, 鷄兒等物載去, 換三升而來也. 正木三疋, 鴉靑三升二疋, 鷄兒卄三首, 鴉靑三升一而半靑三升二疋換來, 麟兒所捉水獺皮, 亦換半靑三升一疋半而來, 計其所送之物而准價, 則多不足, 所換三升亦未極好, 可歎奈何奈何?' (『쇄미록』 8권 480면)

기록이 많다.[76] 주로 물물교환을 했는데, 화폐로 매매한 정황도 보인다.[77] 이는 물건과 돈이 오가는 경제활동이기에, 주-노간 신뢰가 없으면 성립되기 어렵다. 물론 그 과정에서 종이 거래 내역을 임의로 차지하거나 의도적으로 주인을 속이는 일도 있었다. 갯지는 상업적 재능이나 물건을 보는 안목, 신뢰가 부족해서 오희문이 탄식하기도 했지만(㉓),[78] 손해를 감수해서라도 종을 통한 대리 상행위를 중단할 수는 없기에 지속적으로 일을 맡겼다.

셋째, 노비의 신공에 대해 다른 노비를 시켜 대신 받아오게 했다. 이는 노-주간의 신뢰 없이는 수행되기 어려운 일이다. 신공을 거두는 일을 노비에게 맡긴 이는 오희문[79]과 그의 아들(오윤해,[80] 오윤함[81]), 처남 이경여(이지)[82] 등이다. 매부 남상문의 남종이 지나는 길에 오희문의 여종 복시의 신공을 받아온 사례[83]는 가족과 친지의 노비 신공도 교차적으로 거둘 수 있도록 연결망이 작동했음을 의미한다. 정사과댁 노비가 신공을 거둔 사례[84]를 보면, 이는 단지 오희문가에 한정된 일이 아님었다. 신공은 양반가의 실질적인 경제활동의 기반도 되었겠지만, 노-주의 소속감과 연대를 확인하는 문화적 장치의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85]

넷째, 양반은 노비와 물건을 주고받거나 청탁에 응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호혜공동체를 형성했다. 노비는 양반이 청탁을 들어주면 물질이나 마음으로 보상을 했다.

---

76) 덕노와 윤해와 윤겸의 종인 춘기와 개질지, 누이동생 남매의 남종인 덕룡 등이 오희문가에서 사환되어 오희문의 지시에 따라 상행위를 했다(정성미, 앞의 글, 86면).

77) 이 시기의 조선에서 서울에서는 은을 매개로 한 화폐경제가, 지방에서는 물물교환거래가 중심이 되었다(정성미, 앞의 글, 87면; 한명기, 「17세기 초 은의 유통과 그 영향」, 『규장각』 15, 서울대 규장각, 1992, 2-12면).

78) 그밖에 『쇄미록』 6권 31면(원문은 8권 480면) 등.

79) 1591.12.24.(『쇄미록』 1권 53면/ 7권 9면)

80) 1597.4.17.(『쇄미록』 5권 106면/ 8권 221면)

81) 1597.12.7.(『쇄미록』 5권 285면/ 8권 328면)

82) 1595.10.27.(『쇄미록』 4권 213면/ 7권 641면)

83) 1598.6.16.(『쇄미록』 5권 404-405면/ 8권 402면)

84) 1594.7.8.(『쇄미록』 3권 161면/ 7권 421면)

85) 선행연구에 따르면, 피난기에 오희문 집안의 경제는 신공보다는 물품의 수증에 의존했을 가능성이 크다(정성미, 앞의 글, 77-78면).

⑰ 안악에 사는 여종 복시의 남편 은광이 지난 1일에 신공으로 포목 1필, 목화 4근을 가져와서 어머니께 바쳤다. 내가 마침 현의 관아에 있었기 때문에 쫓아와서 술과 음식을 주고 후하게 대접했다. 그러나 마전에게 부림을 당해 몹시 괴로운데 이제 또 마전의 매부 진사 윤중삼이 가족을 거느리고 그 집에 와 있어서 위아래에 음식을 공급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사람을 보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나 일의 형세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집에 종이 없어서 하지 못하고 다만 평강(오윤겸) 더러 윤공에게 편지를 보내 어머니의 뜻을 말하게 했다. 또 안악 군수에게 편지를 보내 그 집을 후하게 돌봐 주게 했다. 하루를 머물게 한 뒤에 양식 1말 5되, 감장 2되를 주어 보냈다. (1597.11.8.)[86]

여종 복시의 남편 은광은 오희문의 어머니에게 신공을 바치러 와서 오희문에게 마전 현감인 신흥점(1551~?)에게 부림을 당해 괴로운 점을 토로하고, 마전의 매부인 진사 윤중삼 가족이 머물러 있어 음식 공급이 어렵다고 하소연하면서 도와달라고 청했다. 남종이 처의 노주에게 도움을 청한 것이다. 오윤겸은 도와줄 여력이 없었기에 아들 오윤겸과 안악 군수에게 편지를 보내 돌봐 주게 했다. 종이 양반에게 신변의 일을 청탁을 했고, 양반도 이를 도왔다.[87]

⑱ 토산 현감 이경담(이희서)이 편지를 보내서 안부를 물었다. 또 이 현에 사는 자기 집의 남종이 구금되어 있으므로 답장을 달라고 칭념하기에 즉시 답장을 써서 보냈다.[88] (1598.12.11.)

이경담은 오희문의 어린시절 친구인데 안협에 임시로 와 있었고,[89] 구금된 남종의 선처를 오희문에게 부탁했다. 칭념이란 수령들이 고을로 부임할 때 그 지방 출신의 고관들이 술과 고기를 가지고 와서 전별하며 자기 고향의 노비들을 잘 보호해 주기를 청탁하는 것이다.[90] 양반의 사회적 관계망에 노비도

86) 『쇄미록』 5권 269면; '○ 安岳居婢福是夫銀光去初一日持貢納, 木一疋・木花四斤來納母主前. 余適在縣衙, 故追來, 饋以酒食, 待之以厚. 但爲麻田所役, 不勝其苦, 而今又麻田妹夫尹進士重三率家屬, 來寓其家, 上下支供極難, 欲使吾家送人云云, 非但勢不可, 家無奴子, 未果. 只使平康致書于尹公處, 諭母主之意, 又致簡于安岳倅前, 厚恤其家爾. 留一日, 給糧一斗五升・甘醬二升而送還.' (『쇄미록』 8권 317면)

87) 물론, 마전 현감의 입장에서는 부리는 종이 업무 불만을 외부로 유출한 것일 수도 있다.

88) 『쇄미록』 5권 493면; '李兎山景曇致書問之, 又稱念其家奴居于此縣者囚禁限受答矣, 卽修答而送.' (『쇄미록』 8권 458면)

89) 1597.7.25(『쇄미록』 5권 173면/ 8권 262면)

포함되어 돌봄의 연결망을 형성했다.

종들은 오희문의 하인이자 이웃이었는데, 피난이라는 특수 상황에서는 휘하에 부리는 종이면서 동시에 타지에서 도움을 주고받는 '이웃'의 개념도 포섭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희문은 양인의 신분으로 집안에서 친밀하게 지내며 함께 일하고 대리상행위도 했던 김억수, 김언신의 청탁도 종종 들어준 바 있다. 배 만드는 일을 하던 김억수의 동생 김경이가 불손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현의 공형에 잡혀가자 어미와 함께 찾아와 오희문에게 도움을 청했고, 오희문은 아들 오윤겸에게 편지를 보내 곤장을 치지 않고 풀어주도록 도왔다.[91] 양인 김언신의 어미는 오희문을 찾아와 관에 수미(收米)를 바치지 못해서 색장에게 머리채를 끌리고 맞은 괴로움을 하소연했다. 오희문은 이와 관련해 이미 아들 오윤겸에게 편지로 선처해주도록 주선했는데, 김언신의 어미가 독촉받은 사연을 알고 다시 편지를 보냈다. 오윤겸은 편지 내용에 따라야 하지만 공정하지 못해 마음이 편치 않다고 했다. 오윤겸도 이에 공감하면서, 미리 거절했어야 했다고 후회했다.[92] 이런 일은 일종의 청탁인데, 양반의 청탁에 양인 이웃이 포함되었고, 때때로 노비도 관련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정서적 환경과 감성의 노-주 공동체

『쇄미록』에는 양반과 노비가 물리적 공간이나 자연환경, 노동과 경제적 차원의 연결성과 공동체를 형성하는 동시에, 정서와 감정으로 연결된 지점이 포착된다.[93] 양반의 제사에 노비가 참여하거나 대신 지내고, 양반이 노비의 제사를 지내주는 등, 영적·문화적 연결성을 유지한 측면도 보인다. 피난이라는

90) '『성종실록(成宗實錄)』 9년 4월 8일 조에 "수령이 부임할 적에 그 지방 출신의 공경대부들이 그를 알든 모르든 간에 모두 술과 고기를 가지고 와서 전별하며 자기 노비들을 잘 봐 달라고 청하는 것이 상하 간에 풍속을 이루었는데, 이를 일러 칭념이라고 하였다.〔凡守令之赴任也 公卿大夫 知與不知 皆持酒肉而餞之 請其奴婢完護 上下成俗 名之曰稱念〕"라고 서술되었다.' (한국고전종합DB를 참조)

91) 해당 사연은 1598년 7월 3일자 일기에 상세하다(『쇄미록』 5권 416면/ 8권 409면).

92) 해당 사연은 1598년 8월 16일자 일기에 상세하다(『쇄미록』 5권 440-441면/ 8권 423-424면).

93) 이문건의 아내인 안동김씨는 친정에서 데려온 억금과 남편의 외정에 대한 고민을 토로할 정도로 친밀한 사이였다(이혜정, 앞의 글, 127·129면을 참조).

특수 상황이긴 했지만, 양반과 노비가 함께 놀이와 풍류를 즐기며 정서적 친밀감을 형성했고, 친구처럼 여겨지는 감정교류도 했다. 이러한 면모는 신분이나 사상, 정치 등의 관점에서 조선시대를 바라볼 때는 포착될 수 없었던 삶의 관계와 정서이기에, 조선시대에 대한 확장적이고 심화적인 이해에 기여할 수 있다.

1) 정서와 영성 공동체: 공감・추억・꿈

오희문은 일기에 종종 자신의 꿈을 기록했고, 가족과 노비의 꿈도 적어 예지몽으로 수용했다.[94] 다음은 오희문이 기록한 여종 개금(오희문의 동생인 오언명의 여종)의 꿈이다.

> ⑲ 언명의 여종 개금이 간밤 꿈에 생원(오윤해)이 책을 들고 동쪽 집에서 여기로 오는데 도중에 썼던 갓이 바람에 날려 하늘로 올라가 잡으려고 해도 그러지 못했다고 한다. 이는 갓을 버리고 관모를 쓸 징조이니, 이번에는 반드시 급제할 것이다. 하례할 일이다. 정유년 봄에 그 형이 한양에 가서 과거를 볼 때 내가 꿈에서 그가 갓을 벗고 와서 뵙는 것을 보았는데, 마침내 꿈이 영험하게 맞았다. 이번에는 어리석은 여종의 무심한 꿈이 이와 같으니 반드시 효험이 있을 것이다. 기쁘다. 이뿐만이 아니라 사람마다 모두 길몽을 꾸었다고 하고 또 열심히 공부했으니 아마 헛되지는 않을 것이다.[95] (1599.7.10.)

오희문은 이전의 꿈에 비추어 개금의 꿈을 아들이 급제할 길몽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오윤해는 낙제했다(1599.8.1.). 여종 개금이 오윤해에 대해 꿈을 꾸었고, 이를 상전과 공유해서 정서적이고 영적인 연결성을 보인 점이 주목할 만하다.

---

94) 정성미(앞의 글, 59면)는 『쇄미록』에 기록된 꿈을 무속신앙의 차원에서 다루었는데 이 글에서는 이를 영성과 무의식, 감성의 개념으로 접근한다. 오희문은 觀象監 命課官으로 임천에 떠돌아와 있는 이복령과 가까이 지내며 자주 길흉을 점쳤다. 당시 함열 현감이었던 사위 신응구도 이복령에게 여러 번 신수점을 보았다(정성미, 앞의 글, 59-60면).

95) 『쇄미록』 6권 136면 '彦明婢介今, 去夜夢中見生員挾冊, 自東家來此, 而中路所着笠子. 風飄飛去上天, 而欲捉不得云. 此乃去笠着帽之兆, 今必登第, 可賀. 丁酉春, 其兄上京觀試之時, 余夢見脫笠來謁, 終得其效, 今者愚婢無心之夢如此, 必有其應, 可喜. 非但此也, 人人皆獻吉夢, 又且人事已盡, 必不虛也.' (『쇄미록』 8권 545-546면)

오희문은 넷째 아들 오윤성(인아)에게 큰사위(신응구)의 병문안을 가게 했으나, 가고 싶어 하지 않자 남종 막정을 대신 보낸 적도 있다.[96] 종들은 노주와 그 가속을 대신해 노주의 가족과 친척, 지인에게 안부를 전하는 업무를 맡았고, 때로 문병도 대신하는 등, 노주의 정서적 친교를 대리 수행했다. 노-주가 정서적 연결체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⑳ 나는 본래 한양 사람인데 여기서 4, 5개월 동안 객지 생활을 하다 보니 이곳의 위아래 사람들이 친구처럼 느껴진다.[97] (1592.4.13. 즈음)

오희문은 자신이 서울 사람이지만, 피난 와서 객지 생활을 하면서 이웃의 도움을 받고 지내다 보니 오래된 친구처럼 여겨진다고 했다. 실제로 『쇄미록』에는 오희문이 지역의 백성, 관리, 아전, 종들과 친밀하게 지내는 모습이 종종 기록된다. 서산군 관아의 남종인 어둔과 고손은 오희문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술을 가지고 찾아와 오희문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98] 노비와 양반이 과거의 기억을 나누며 정서적으로 교감하는 추억 공동체의 모습을 보였다. 양반은 노비와 학문과 사상, 정치를 논하는 지기나 벗이 되기란 어려웠지만,[99] 같은 공간에서 음식과 물건도 나누고 일과 놀이도 함께 하고 정서와 꿈도 나누면서 친밀한 감정을 쌓아갔다.

2) 제사와 의례 공동체: 제사・차례・묘지기

『쇄미록』에는 망자 제례를 매개로 양반과 노비가 영적・의례적 공동체의 면모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00]

첫째, 양반가의 제사나 차례를 노비가 준비하고 돕거나 묘지기로 일한 정황이다.

---

96) 1595.8.13.(『쇄미록』 4권 173면/ 7권 616면)
97) 『쇄미록』 1권 63면; '余本京人, 爲客於此, 今至四五朔, 上下若舊.' (『쇄미록』 7권 12면)
98) 1592.12.18(『쇄미록』 1권 318면/ 7권 146-147면)
99) 물론 시회(詩會)를 통해 양반과 중인, 노비가 문학적으로나 예술적으로 교감하고 친교를 나눈 사례가 있다. 이에 대한 선행연구가 많기에, 다시 논하지 않는다.
100) 『쇄미록』에 대한 제사 관련 기록은 정성미, 앞의 글, 32-37면에 상세하다.

㉑ 아침에 덕노를 함열로 보내 제수를 구해 오도록 했다.[101] (1596.4.26.)
㉒ 내일 제수는 두 딸에게 여종을 데리고 친히 마련하도록 했다. 마침 집사람이 병으로 누웠고 언명의 처도 부친상을 당해서 아직 성복을 하기 전인 까닭이다.[102] (1596.4.28.)

오희문은 1596년 4월 26에 덕노를 시켜 제수를 구해 오게 했는데(㉑), 그는 27일에 돌아왔다. 28일에는 두 딸이 여종과 함께 제사 음식을 조리해서㉒), 29일 새벽에 아버지 제사를 지냈다. 1599년 5월 3일에는 여종 옥춘이 제수를 가지고 춘금과 함께 산소에 갔고, 4일에는 옥춘과 묘지기에게 제수로 음식을 조리하게 했으며, 5일에 조부모, 아버지, 숙부 내외, 아우, 딸의 순서로 제사를 지냈다.[103] 양반의 제사에 대해 노비가 제수 마련, 제사 음식 조리, 신주 운반, 묘지기 등 다양한 차원에서 참여해 양반의 조상 숭배 문화에 기여했다.[104]

둘째, 종이 양반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에 직접 참여하거나 주관한 경우다.

㉓ 생원(오윤해)의 양부와 양조부모의 신주와 죽전동 숙부 내외분의 신주를 적들이 파내서 뜰에 내버려둔 것을 여종 옥춘이 모셔다가 관동 장수 현감의 집 동산에 묻었다고 한다. 그래서 생원(오윤해)이 직접 가서 양부와 양조부모의 신주를 찾아서 파냈고 죽전동 숙부의 신주는 파묻은 곳을 알 수 없어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했다고 하니 반드시 옥춘이 온 뒤에라야 알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생원(오윤해)의 양조부모 신부의 부방(받침)은 잃어버렸다고 한다. 오는 길에 수원에 있는 남종 내은동의 집에 신주를 편안히 모시고 돌아왔다고 한다. (…) 여종 옥춘이 온 뒤에 죽전동 숙부 신추의 거처를 물었더니, 당초에 관가의 다락 위에 두었는데 적이 분탕질했을 때 타 버렸다고 한다.[105] (1593.5.8.)

---

101) 『쇄미록』 4권 320면; '朝, 送德奴於咸悅, 爲覓祭需事也.' (『쇄미록』 8권 52면)
102) 『쇄미록』 4권 321면; '且明日祭需, 令兩女率婢等, 親執辦備. 適家人病臥, 彦明妻亦遭父喪, 時未成服故爾.' (『쇄미록』 8권 53면)
103) 각각 『쇄미록』 6권 103면/ 8권 525면; 『쇄미록』 6권 104면/ 8권 525면; 『쇄미록』 6권 104면/ 8권 526면. 그 밖에 종들이 제수를 마련하고(1599.12.24.: 6권 214면/ 8권 596면), 딸과 며느리가 여종과 제수를 마련한 정황이 종종 기록된다. 1599.9.14.(『쇄미록』 6권 170면/ 8권 567면; 1600.8.14.(『쇄미록』 6권 325면/ 8월 669면) 등.
104) 『국조보감』(이덕수, 49권 숙종조 9, 18년. 임신, 1692)에 따르면 사육신인 성삼문의 아버지인 성승도 연루되어 죽음을 당했는데, 그의 노비가 매년 초혼제를 올렸다.
105) 『쇄미록』 2권 78-79・82면; '且生員養父及養祖父母神主, 與竹前洞三寸兩位神主, 爲賊所掘, 棄置於庭, 婢玉春奉去埋于館洞長水家東山云. 故生員親往, 尋掘其養父及養祖父母神主, 而竹前三寸神主, 則不知埋處, 窮尋

위는 옥춘이 오윤해(오희문의 차남으로 오희문의 동생 오희인의 후사가 되었다)의 양부와 양조부모의 신주 및 숙부 내외의 신주를 간직해 모셔둔 기록이다. 적들의 난입으로 숙부의 신주는 구하지 못했지만, 여종이 노주 가문의 예를 지키는 역할을 했다.

㉔ 토당의 남종 성금이도 따라갔다. 아내가 은어를 얻어 그곳의 노비들에게 주면서 죽은 딸의 묘 앞에 화초를 심게 했다. 또 과일과 말린 꿩고기 2조각을 싸 보내서 묘 앞에 제사를 지내게 했다. 딸아이의 꽃다운 넋이 만약 그 남종이 여기에서 갔다는 말을 들으면 분명 기꺼이 맞으며 슬퍼할 것이다.[106] (1597.2.24.)

㉕ 이는 단오가 곧 다가오는데 아우와 아이들이 모두 일이 있어 올라가지 못하므로 덕노에게 현에서 제수를 얻어 그길로 올라가 선산에 제사를 지내게 하기 위해서이다.[107] (1598.4.29.)

위는 오희문의 처가 종을 시켜 죽은 딸의 묘에 제사 지내게 하고(㉔), 오희문이 덕노를 시켜 선산에 제사 지내게 한 사례다(㉕). 사실 덕노는 오희문의 아들인 오윤함을 따라간 것이고, 선산에 제사를 지낸 것은 아들인데, 문장에서 덕노를 제사의 주체로 적을 만큼, 노비가 제사에 참여하는 일이 자연스러웠음을 알 수 있다. 춘금 등 노비에게는 직접 산신 제사를 지내게 했다.[108]

셋째, 양반이 종을 위해 제사를 지내준 경우다. 살았을 때 노주가에 공을 세운 종에게 제사 지내는 행위는 종들의 귀감이 되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㉖ 죽은 아우 묘소는 석린에게 진설하게 했다. 또 묘지기를 시켜 증조부의 전어머니 권씨와 이씨 두 분께, 또 세만을 시켜 죽은 손자 막아의 묘에, 그리고 덕노를 시켜 죽은 누이동생과 임경흠의 아들 지생의 묘에 진설하게 해서 망전을 지냈다. / 물린 제수로 여종 마금과 덕노의 아비 덕수의 묘에 망제를 지내게

未得云, 必玉春來後可知矣. 但生員養祖父母神主跌力失之, 而奉其神主來路, 水原地奴內隱同家安綏而後返矣. (…) 婢玉春來後, 問其竹前洞叔父神主去處, 則當初置館家樓上, 而焚蕩時, 亦被煨燼云.' (『쇄미록』 7권 201・203면)

106) 『쇄미록』 5권 66면; '土塘奴成金伊亦隨去. 家人得銀魚, 付給其處奴婢等, 因使亡女墓前植花草, 裹送實果, 乾雉兩支, 使奠墓前. 英魂有知, 若聞奴子自此而歸, 則必有欣迎而悲慼. ' (『쇄미록』 8권 199면)

107) 『쇄미록』 5권 374면; '乃端午臨近, 弟與兒輩皆有故不得上去, 故令德奴覓祭物於縣, 因以上歸, 行祭先墓矣.' (『쇄미록』 8권 383-384면)

108) 1599.9.13.(『쇄미록』 6권 170면/ 8권 566면)

했다. 모두 끝난 뒤 묘 아래에서 하직하는 절을 올리고 묘지기 남종 억룡의 집으로 돌아와 먹고 남은 음식을 묘지기 노비와 이웃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석린, 허찬 등과 더불어 음복을 했다.[109] (1596.8.15)

㉗ 아침 식사 전에 인아와 함께 제사를 지낸 뒤 남은 음식으로 살아 있을 때 공이 있었던 노비 중에서 자손이 없어 제사를 받지 못하는 자들의 제사를 지내주었다.[110] (1597.8.15)

오희문은 추석을 맞아 산에 올라가 제수를 차리고 조부모, 아버지, 숙부께 예를 올렸다. 묘지기와 세만, 덕노에게는 증조부의 전어머니 권씨와 이씨, 손자 막아, 죽은 여동생, 임경흠의 아들 지생의 묘에 제수를 차리게 하고 망전을 지냈다. 조상과 가족의 제사를 지낸 뒤에는 제수를 물려 종들(마금, 덕수)의 묘에 망제를 지내게 했다. 양반가를 위한 제물을 노비의 죽은 가족과 공유한 셈이다.

넷째, 제사를 지낸 음식을 양반과 노비가 함께 먹었다.[111] ㉖에서 제사를 지낸 뒤 산에서 내려온 오희문은 남종 억룡의 집에 와서 묘지기 노비와 이웃에게 제수를 나누어주었고 친척인 허찬 등과 음복했다.

이상과 같이 양반과 노비는 제사의 준비와 과정에 함께 참여했고, 노비가 대신 제사를 지내기도 했으며, 양반가의 제수를 물려 노비의 제사를 지내주기도 하는 등, 의례공동체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3) 풍류와 감성 공동체: 음악・잔치・구경

일상의 현장에서 양반은 노비와 함께 음악과 노래, 춤, 놀이, 풍류와 잔치를 즐겼으며, 경치 좋은 곳을 함께 구경하는 등 풍류와 놀이, 유람을 매개로 연결성을 유지하며 감성 공동체를 형성했다.[112] 양반의 풍류 모임이나 잔치, 유람에 신분이

109) 『쇄미록』 4권 398면; '亡弟墓則令夕鱗行奠, 又令墓奴設奠曾祖前母權・李兩位, 又令世萬設奠亡孫莫兒, 又令德奴設奠亡妹及景欽子遲生處亡奠. 又以退物望祭亡婢馬今及德奴之父德守處. 畢後, 辭拜墓下, 還來墓直奴億龍家, 飯餘之物, 分給墓奴婢及鄰里人等. 因與石鱗及許鑽等飮福.' (『쇄미록』 8권 98면)

110) 『쇄미록』 5권 188면; '朝食前, 與麟兒行祭後, 餘及生時有功奴婢等無子孫不祭者.' (『쇄미록』 8권 271면)

111) 상세한 논의는 이 글의 3장 1)절 셋째 항목을 참조.

112) 『묵재일기』를 보면 이문건의 어린 손자 숙길이 남종 종만과 함께 걸인 흉내를 내거나 공부하다 도망쳐 노비들과 북을 치고 논 기록이 있다(이혜정, 2012, 135-136면). 『묵재일기』와 『쇄미록』 등을 보면 노-주가 함께 논 것은 단지 어린 시절만이 아니며, 성인이 되어서도 풍류와 유람을 함께

같은 가족, 친지, 친구와 지인이 참여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쇄미록』을 보면 이러한 현장에 공연자이자 관람객, 구경꾼으로 노비가 동석한 정황이 있다.

㉘ 백순의 남종 가운데 피리를 부는 자가 있고 백익이 여종 가운데 가야금을 타는 자가 있어서 가야금과 피리를 아울러 연주했다. 난리 이후로 지금 비로소 음악을 들으니 또한 서글픈 마음이 들었다. 저녁 무렵에 몹시 술에 취하고 배가 불러서 홍공과 함께 나란히 말을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113] (1595.11.10.)

㉙ 참석한 사람은 판관 상시손, 훈도 조의, 별좌 이덕후, 좌수 조희윤, 좌랑 조희보, 생원 홍사고, 생원 윤대복, 부장 이시호, 판관 조대림, 별감 주덕훈, 좌수 조응립이다. 우리 형제도 모였다. 노래를 부르는 관노와 사노도 5, 6명이었다. 또 피리 부는 자가 노래를 부르거나 피리를 불며 종일 놀다가 저녁 무렵에 각자 헤어졌다.[114] (1596.4.6.)

오희문은 피난처에서 종종 모임을 즐기고 풍류를 즐겼다. 참석자로 적힌 이는 양반인데(1596.2.16.; ㊳), 가창자나 연주자로 노비가 참여했다. ㉘의 모임에서는 백순의 남종이 피리를 불고, 백익의 여종이 가야금을 연주했다. 이 음악은 오희문을 슬픔에 잠기게 했는데, 그만큼 연주의 기량이나 감성이 뛰어났음을 시사한다. 오희문은 모임이나 잔치에서 노비의 노래를 감상한 사례를 종종 기록했다. 가창자는 관노인 경우도 있지만 관노와 사노가 어울리기도 했다.

노비가 동석했다는 기록이 없이 술과 노래를 즐긴 정황도 있는데, 양반이 외출할 때는 노비를 수행한 경우가 많고, 초대받은 곳에 선물을 운반하는 역할도 필요했기에, 풍류 모임이나 잔치에 노비가 동석했을 가능성이 크다. 『묵재일기』에도 노비 연주자가 양반의 연회에서 기량을 발휘했던 '풍류비'에 대한 기록이 있다.[115] 이를 양반가에 대한 노비의 노역이나 봉사로도 볼 수

즐긴 정황이 있다(최기숙, 「여종의 젖과 눈물, 로봇-종의 팔다리: '사회적 신체'로서의 노비 정체성과 신분제의 역설」,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44,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22, 194-198면을 참조).

113) 『쇄미록』 4권 218면; '伯循奴子有吹笛者, 伯益婢有彈伽倻琴者, 故令其作樂, 琴笛幷奏. 而亂離後, 今始聞樂, 亦可悲矣. 臨夕極醉飽, 與洪公幷轡還寓.' (『쇄미록』 7권 644-645면)

114) 『쇄미록』 4권 305면; '.參席者, 尙判官薯孫, 趙訓導毅, 李別坐德厚, 趙座首希尹, 趙佐郎希輔, 洪生員思古, 尹生員大腹, 李部將時豪, 曺判官大臨, 朱別監德勳, 趙座首應立暨余兄弟亦聚, 唱歌官婢與私婢五六, 而又有吹篴者, 或歌或篴, 終日戱遊, 臨夕各散.'(『쇄미록』 8권 43면)

115) 해당 논의는 최기숙, 앞의 글, 2022, 194-197면을 참조.

있지만, 음악으로 대변되는 예술의 특성상, 연주자 자신이 느끼지 않는 것을 전달할 수 없기에, 연주자 자신이 이미 예술성을 갖춘 공연자라 할 수 있다.

> ㉚ 당진 황수(영춘 현감을 지냄)가 철원 땅에 피난하여 거처하는데, 그 집에 노래를 잘하는 여종이 있다고 하여 사람을 보내서 빌렸다. 느지막이 두 여종을 보내왔다. 만일 이들이 아니었다면 모양새를 갖추지 못할 번했다. / 놀이꾼들이 각자 온갖 재주를 보여 주었고, 선생들도 새로 급제한 사람을 희롱하여 얼굴에 온통 먹칠을 하기도 했으며, 아름다운 여인을 업게도 하고 땅에서 한 치를 뛰게 하기도 하면서 노래도 하고 춤도 추니 구경꾼들이 구름같이 모였다.[116] (1597.4.21.)

『쇄미록』에는 오희문의 아들 오윤겸이 급제를 해서 1957년 4월 16일부터 29일까지[117] 잔치한 기록이 있다. 며칠 동안 다양한 인원이 공연을 했는데, 레퍼토리가 달랐다. 전문 연행가로 보이는 정재인 서순학과 놀이 광대 유복이 등장하고,[118] 기녀와 악공. 노래 잘하는 여종 등 공연자도 다양했으며, 공연 내용도 다채로웠고, 관람자도 다양했다. 연행자에게 일정 비용을 지불했다.[119] '구경꾼들이 구름같이 모여든' 관중에는 노비도 포함되었을 것이다(설령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해도 음악을 연주하는 소리는 들을 수 있다).

그밖에 오희문은 인아와 남종 둘과 시냇가를 산책했으며,[120] 광노와 함께 관왕묘에도 갔다.[121] 오희문의 아내도 다른 여자들과 동대로 구경간 기록이 있다.[122] 오희문의 아내 혼자서 교자를 탄 것으로 보아 동행자는 양반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남녀 양반이 종들과 함께 휴식하고 구경하며 놀이를

---

116) 『쇄미록』 5권 108면; '黃唐津琇, 避寓鐵原地, 聞麒家有歌婢, 使人借之. 晩後, 亦送兩婢, 若非此, 則幾不成貌樣矣./ 才人等各呈百戲, 先生等亦侵戲新來, 或滿面塗墨, 或使負佳人, 或去地一寸, 或歌或舞, 觀者如堵.' (『쇄미록』 8권 222-223면)

117) '광노와 놀이꾼들이 오늘에야 비로소 돌아갔다.' (1597.4.29.) (『쇄미록』 5권 114면; '光奴及才人等, 今始還歸.' 8권 226면)

118) 이들을 전문 연행가로 볼 수 있는 이유는 무인 최수영의 알성시 급제를 축하하는 잔치에서 같은 놀이꾼이 공연을 한 정황이 보이기 때문이다.: '놀이꾼을 보니 전에 윤겸이 데리고 왔던 자들이다.' (1597.4.27.) (『쇄미록』 5권 113-114면; '見才人, 卽乃前日謙兒所帶者.' 8권 226면)

119) 1597.4.29(『쇄미록』 5권 114면/ 8권 226면)

120) 1597.5.10(『쇄미록』 5권 122면/ 8권 231면)

121) 1599.5.8(『쇄미록』 5권 108면/ 8권 527면)

122) 1597.5.25.(『쇄미록』 5권 133면/ 8권 238면)

즐겼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오희문의 관광을 수행했던 광노는 손재주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일기에는 오희문이 광노에게 딸의 은반지를 만들게 했다는 기록이 있는데,[123]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금속공예가로서 소품 디자인을 한 것이다. 광노는 은반지를 만드는 것 외에, 깨진 그릇을 때우고 거울을 가는 일도 했다. 이들은 모두 정교한 작업이고 미적 감각이 필요하다. 그러나 당시에는 노비의 제작 기술이나 디자인 작업에 대해 예술로 인정하는 시선이나 문화가 없었기에 허드렛일을 담당하는 종의 일로 기술되었다. 그러나 제작자이자 창작가(노비)의 입장에서는 작업의 완성도나 심미적 장식, 마감 등 예술적 고려가 중요했을 것이다.

5. '아카이브 신체'로서의 노비 정체성과 '조립식 신체'의 노-주 연결성

조선시대를 사유할 때 신분이나 젠더 중심의 위계적이고 분절적인 사고방식을 '자연화'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유교적 이념과 사상, 정치, 남성 지배의 관점, 신분제 사회라는 시각과 프레임에 의존한 결과다. 이와 시각을 달리해, 신분 간 연결성과 접점에 주목하면, 위계나 격절의 관점으로는 보이지 않던 다양한 활동, 관계, 정서를 읽어낼 수 있다. 젠더 연구와 소수문화에 대한 확장적 연구가 수행되면서 연구의 지평이 확대되었으나, 신분간 연계, 젠더 경계를 넘어선 공동체성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미미하다. 신분과 젠더를 교차해 연결성과 교섭, 공동체성에 대해 접근하려면, 양반 남성의 동질 집단 내부의 커뮤니티를 이해하는 방식(정치적 당파, 사상적 계보, 문학적 경향 등)을 신분적, 젠더적으로 확장하거나 모자이크하는 방식으로는 불완전할뿐더러 부적절하다. 이 글에서는 양반과 노비의 연결성과 공동체성을 '삶(살아감. 일상)의 차원'에서 살핌으로써 조선시대의 노-주 관계가 복합적 관계망을 형성했고, 물리적, 환경적, 정서적, 영적 차원에서 공동체적 연결성을 지니고 있음을 논증하는 방식으로 이에 응답하고자 했다.

---

123) 1599.5.7.(『쇄미록』 6권 107면/ 8권 527면)

조선시대 노비는 양반가에 종속된 일꾼이자 재산이었지만, 양반가의 일상을 의식주의 기초 생활 영역에서 지탱해준 자원이었으며, 양반의 인간관계, 예의범절, 인륜, 인간됨 그 자체가 가능할 수 있게 기능했던 매개자였다. 노비는 양반이 건강하고 의롭고, 예의 바른 삶을 살도록 이어줌으로써, 양반과 일정 부분 느슨하거나 단단하게 연결된 신체를 형성했다. 노비의 축적된 노동과 단련된 기술력, 인내심,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통해 숙련된 사회생활의 노하우는 양반의 일상과 삶의 질, 문화와 역사에 영향을 미쳤다. 노비는 일생토록 경험과 능력, 자질과 태도를 축적하면서 스스로를 '아카이브된 신체(archived body)'로 조율했다. '몸종(bondmaid)'이라는 단어는 노비와 노주의 신체적 연결성을 직관적으로 시사한다.

노비는 노비들과만 교섭하고 가족을 형성하면서 동질 신분 집단 내부에서 폐쇄적인 문화를 향유한 것이 아니라, 노주 및 노주 공동체와 직·간접적으로 교류하고 소통하고 협상하면서 다선적이고 중층적인 사회적 연결망을 형성했다. 노비의 협력과 도움이 없다면 양반의 일상은 윤리적, 정서적 연결성과 심리적 안녕감, 물질적 안정, 신체 건강을 유지하기 어렵다. 노비는 단지 양반이 부리는 수단적 존재가 아니라 윤리와 정서의 매개였으며, 전란의 고초를 함께 겪고 헤쳐간 피난의 동반자였다. 공간, 주거, 음식을 함께 나누고 꿈과 감정을 공유하며 제수를 함께 음복한 생명과 정서, 영성의 공동체이기도 하다. 노비는 노주에게 예속되어 노동력과 신공을 바치는 가운데, 노동의 숙련자, 경험과 지식, 기술 축적의 주체, 감성과 영적 교류의 연결체로 자기를 단련했다.

노비는 경험과 지식, 감성의 '아카이브 신체'로 성장하며 신분제를 가로질러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하고 확장하는 엄연한 일상과 문화의 주체였다. 노-주는 필요와 상황에 따라 조립식 신체와 같이 이체다각(異體多角)의 아카이브 신체로 서로를 연결하고 재구성하면서 일상과 생애를 지탱하는 협력적 연결체이기도 하다(양반의 명령으로 신공을 받으러 이동하는 노비는 양반과 '연결된 신체'를 형성하며, 이때 양자는 잠정적인 생활체로 '조립'된다. 양반의 명으로 숙련 노동을 하거나, 심부름으로 잦은 이동을 했던 노비는 지리적,

생활적, 사회적, 신체적으로 정보와 노하우를 축적한 '아카이브 신체'다).

양반과 노비의 연결성과 공동체성에 대한 이 연구는 조선시대에 실재했던 문화를 문헌해석학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기에, 문자로 기록된 이면에 흔적으로 남아 있는 감정, 태도, 행위 요소에 대한 분석 등 정동적 이해가 중요하다. 노-주간 연결성과 공동체성에 대한 이해와 상상력이 역사와 문화, 문학을 바라보는 방법론적 시선이 될 때, 신분적 위계에 따라 분절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으로는 해명할 수 없는 역사적 실재, 일상, 감성, 가치, 윤리와 접속할 수 있다. 어떤 면에서는 신분제라는 개념이나 관점으로 조선시대를 사유하는 방식이 과연 조선시대 내부로부터의 것인지, 단지 역사를 바라보는(연구하는) 현대적인 렌즈를 투과한 결과인지에 대해 근본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 노비는 (거의 절대적으로) 문자 기록의 주체가 될 수 없었고 노주의 기록 속에서 타자화되었기에, 노비의 의지나 가치 지향, 욕망에 대한 이해는 파편화된 흔적으로만 접근할 수 있다. 따라서 문자 권력을 장악한 기록 주체의 의지나 지향에 흡수되어 양반의 시각으로 문화사를 재구성하는 방식은 문자화된 역사와 문학 이해의 동어반복에 그치는 것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역사적 주체에 대한 배제이며 탈각이다. 조선시대 연구를 건축 연구에 비유한다면, 기둥이나 문으로 분할된 공간 연구의 합이 건축에 대한 이해의 전체가 될 수 없으며, 공간과 공간, 안과 밖을 연결하는 문지방이나 경첩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어떤 면에서는 공간을 분할하며 경계를 나누고 상호 소통시키는 '경첩'에 대한 아이디어로부터 건축물 전체를 재설계할 수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양반 남성의 사상, 정치, 학문, 문학에 대한 연구를 조선시대 전체에 대한 연구로 전유하거나 환치하는 방식으로는 규명하기 어려웠던 양반과 노비의 일상과 정서, 감성에 주목하기 위해 양반의 일상 기록인 일기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조선시대의 노-주 관계 및 신분제 사회에 대한 확장적 인식을 이끌어 내고자 했다.

▮ 참고문헌

오희문,『쇄미록』1-8, 국립진주박물관 편,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옮김, 사회평론아카데미, 2019.
『譯註 經國大典』飜譯篇, 韓沈励 외 옮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5.

강명관,『노비와 쇠고기』, 푸른역사, 2023.
김용만,『朝鮮時代 私奴婢硏究』, 집문당, 1997.
이수건 편저,『경북지방고문서집성』, 영남대 출판부, 1981.
이혜정,「16세기 奴婢의 삶과 의식세계:『묵재일기』를 중심으로, 경희대 박사학위논문, 2012.
전형택,『조선 양반사회와 노비』, 문현, 2010.
정성미,「『쇄미록』 연구」, 원광대 박사학위논문, 2003.
조우영,『경국대전의 신분제도』, 한국학술정보, 2008.
지승종,『朝鮮前期 奴婢身分硏究』, 일조각, 1995.
최기숙,「『묵재일기』. 16세기 양반의 감정 기록에 대한 문학/문화적 성찰」,『국어국문학』193, 국어국문학회, 2020.
_____,「女工・婦德・梱政과 '영혼 노동': 조선시대 양반 여성의 결혼생활과 노동/장 재성찰」,『인문과학』123, 연세대 인문과학연구원, 2021.
_____,「여종의 젖과 눈물, 로봇-종의 팔다리: '사회적 신체'로서의 노비 정체성과 신분제의 역설」,『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44,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22.
_____,『이름 없는 여자들, 책갈피를 걸어나오다』, 머메이드, 2022.
_____,「매 맞는 노비와 윤리/교양의 역설:『묵재일기』의 문학해석학적 연구」,『동방학지』203, 연세대 국학연구원, 2023.
Marc Augé,『비장소』, 이상길・이윤영 옮김. 아카넷, 1992/2017.

【Abstract】

The Network. Community and Archived body between Nobi (Servants) and Yangban during Joseon Period : A literary and Interpretive Study on the Records of ths Servants in *Soaemirok*

Choe, Key Sook*

This paper, focusing on records related to house servants (nobi) described in Oh Hi-mun's journal, *Soaemirok*, analyzes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nobi and yangban in everyday life is not just a vertical relationship of command-execution maintaining a hierarchy of status, and a subordinate relationship of domination-obedience. This paper proves that they formed a community in physical, emotional and spiritual dimensions, and formed identity and connectivity as a community of life and destiny. In *Soaemirok,* Oh Hi-mun and his family stay at a servant's house during the period of evacuation from the Imjin War, describing a scene showing mutual care and interdependence between nobi and yangban. In the nobi's house, which is a refuge, the nobi and the owner showed the aspect of a community where they ate the same food, and had the characteristics of an environmental community such as housing, weather, disaster and disease. Nobi and yangban worked together, and novi acted as a proxy under the orders of the yangban, establishing a connective relationship that they trusted each other economically. In terms of environment and emotional level, nobi and yangban were an affect and spiritual community that empathized emotionally and shared memories and dreams, and maintained the connectivity of sharing or performing rituals. They shared a community of taste and sensibility, enjoying music, feasts, and sightseeing together. Although nobi were excluded from learning literacy and systemic education due to their status, they trained themselves as archived bodies by physically and experientially accumulating knowledge, information, culture, and sensibility. Yangban and nobi maintained a flexible connection by repeating connection and separation like a assembled body according to daily needs or issues.

In this study, by analyzing the negotiations and connectivity between nobi and

* Professor, The Interdisciplinary Graduate Program of Korean Studies, Yonsei Univ.

yangban, the complexity, multi-layeredness, connectivity, and communal dimension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nobi and yangban was proved.

Keywords: Oh, Hi-mun, *Soaemirok,* nobi, house servants, yangban, archived body, journal, bondmaid, evacuation.

접수일: 2023.06.30. ‖ 심사일: 2023.07.12. ‖ 게재확정일: 2023.08.20.